

안전 점검의 범위

우리는 우직스럽다고 할 만큼 방재 활동을 직접적인 안전 점검 즉 위험진단 중심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의 소방에 대한 인식 및 각종 방재 시설의 개선에 공헌을 하였으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누가 알아주지 않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수행하여 온 안전 점검 업무가 과연 완전 무결하였는가? 계속 증가하는 특수 건물을 한정된 인원으로써 종래 방식대로 커버할 수 없게 된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언필칭 우리 협회는 국내 유일의 민간 종합 방재 기관이라고 한다. 종합 방재 기관이라면 직접적인 방재 활동과 간접적인 방재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두다 보니 대외 기술 홍보 등 간접적인 방면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아닌가 자괴(自愧)하는 마음이 있다.

안전 점검 결과를 관계 당국과 소유주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우리 사명을 다했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가? 안전 점검의 범위는 조사 후 통보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는 과연 없었는가?

일부 직원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며, 또한 그런 태도를 가졌었던 배후에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령, 점검을 받은 건물 소유주가 시설을 개수하려면 어떤 설비업체, 어떤 제품을 이용하면 좋겠느냐고 질문해 올 때 우리는 지금까지 뚜렷한 답변을 하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였다. 물론 시험소가 없는 형편에서 메이커의 선전만을 믿을 수 없는 경우 무답(無答)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구실로 우리 스스로가 안전 점검의 범위를 제한한 일은 과연 없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 시험소도 갖추어졌고 안전 점검의 내용도 혁신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간접적인 방재 활동 내용이 대폭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준공 후의 안전 점검 중심에서 탈피하여 방재 기술정보의 제공, 상담, 방화 관리자의 기술 교육 등 아직까지 비교적 소홀히 하였던 분야에 눈을 돌려야 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안전 점검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축소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자신의 실력을 먼저 길러야 한다. 1973년 우리 협회가 설립될 당시에만 해도 우리 협회 등 극히 소수만이 NFPA 회원이었고 우리가 방재에 관한 말을 어떻게 하든 그것이 권위 있는 말로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졌으나, 이제는 우리 나라 다수의 기업체·개인이 NFPA 회원으로 될 만큼 모든 여건은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생각만 하고 안주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대처가 있어야만 하겠다. 주인 의식의 발로가 요망된다고 판단되는 것이다.